

Publication: Electronic Times

Date: 07/04/2011

Subject: [NetEvents 2011] Nan Chen from MEF, "Obtain Certification for Professional Course of MEF Carrier Ethernet"

<http://www.etnews.co.kr/201104070195>

[넷이벤츠 2011] 난 첸 MEF 회장 "MEF 캐리어이더넷 전문가 인증 받으세요"

지면일자 2011.04.08 랑카위(말레이시아)오른지기자 onz@etnews.co.kr ▶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

메크로이더넷포럼(MEF)에서 장비·서비스 인증 이외에 전문가 인증과정을 신설했다.

난 첸 MEF 회장은 6일(현지시각)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랑카위 인다만호텔에서 열린 '넷이벤츠(Net events) 2011'에서 "전 세계 캐리어이더넷 표준 제정 포럼인 MEF에서 관련 기술 인력들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했다"고 말했다.

MEF 캐리어 이더넷 자격전문가(CECP)는 두 가지로 진행된다. 100가지 다차 선택 문항을 2시간 동안 풀어서 통과하면 캐리어 이더넷과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. 첸 회장은 "웹캠을 사용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시험을 볼 수 있고,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"고 말했다. 인증에 드는 비용은 약 350달러다.



난 첸 mef 사장

MEF는 이더넷 관련 표준을 만들고 인증하는 조직이다.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액은 약 90억달러다. 지난 2001년 설립돼 전 세계 177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. 통신사업자에 필요한 큰 규모의 캐리어급 이더넷 분야에서 30여개 표준을 제정했고, 현재 18개 표준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. 그는 "각국에 있는 통신사의 이더넷 통신망이 서로 호환이 돼 세계 어디에서도 끊기지 않는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"이라고 말했다.

MEF는 전 세계 캐리어 이더넷이 직접 연결되거나, 캐리어 이더넷 교환기가 허브 역할을 해서 한 곳에 집결됐다가 퍼져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.

첸 회장은 "앞으로 이더넷 시장에서 무선 백홀 분야가 가장 성장해 2014년에는 전체 이더넷 트래픽의 3분의 1까지 차지하게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현재 MEF에서 활동하는 국내기업은 없다. 첸 회장은 "KT가 회원사로 있다가 빠져서 한국에는 고객이 없지만 한국에 오는 6월 방문해 MEF를 홍보할 것"이라며 "올해는 고객사를 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"이라고 말했다.

◁캐리어이더넷(Carrier Ethernet)=유선 인터넷망, 무선망, 유비쿼터스망을 연결하는 통신 프로토콜의 일종인 '이더넷'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. 데이터 처리속도가 초당 10기가비트(Gb) 이상으로 통신사업자들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백홀·가입자 통신망에서 이용한다.

랑카위(말레이시아)오른지기자 onz@etnews.co.kr